광주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톡톡'

올해 1월 개소…상반기 천연기념물 등 42종 157마리 야생동물 구조

먹이 급여 솔부엉이

재활중인 노루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월 본격 운영을 시작한 광주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이하 '광주 센터')가 상반기에 총 42종 157마리의 야생동물을 구조해 그 기능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지역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치료는 지난해까지 구청별 지정 동물병원 5곳에 위탁해 연평균 120여 마리 구조실적을 보였지만, 올해 야생동물 전문 '광주 센터'가 설치된 후 구조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광주지역에서 구조된 야생동물은 조류가 137마리(88%)로 가장 많고, 포유류 17마리(11%), 파충류 3마리(1%) 순이다. 새매와 솔부엉이, 삵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동물 8종 32마리도 포함됐다.

위급상황의 구조 동물 157마리 중 41마리는 치료와 재활과정을 거쳐 처음 구조된 지역을 우선해 자연으로 돌아갔다. 현재 40마리는 치료·재활중이다.

구조 원인으로는 어미를 잃은 '미아' 사례가 76마리(49%)로 가장 많고, 야생조류가 건물 유리창을 보지 못하고 부딪힌 '충돌' 사례가 44마리(28%), 차량충돌·쥐끈끈이·질병감염 등 사례가 37마리(23%) 순이다.

배성열 센터장은 "대부분의 야생동물 번식기인 4~8월에 어미 잃은 어린 동물이 많이 발생하는데 주변에 어미 동물이 있을 수 있으니 일정 시간 관찰한 후 구조요청을 해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지역 야생동물 보호와 보전,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 센터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전남도, 하반기 공사·출연기관 채용 필기시험 9월… 43명으로 통합채용 이래 최다

전남도는 2019년 하반기 도 산하 공사·출연기관 통합채용 필기시험을 오는 9월 21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채용 인원은 43명이다. 2017년부터 통합채용을 실시한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다.

이는 일부 출연기관의 정원 확대에 따른 것으로 취업 준비생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기관별로는 ▲전남개발공사 8명 ▲순천의료원 12명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2명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3명 ▲전남생물산업진흥원 14명 ▲전남신용보증재단 2명 ▲한국학호남진흥원 2명이다.

원서 접수는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채용 예정 기관에서 한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누리집, 채용 기관별 누리집,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정보시스템(클린아이잡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전남도 주관으로 시행한다. 면접과 최종 합격자 선발은 채용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한다.

필기시험 과목은 일반상식과 전공으로 채용기관별 모집 직렬에 따라 다르게 출제하므로, 응시자들은 기관별 공고문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남도는 2017년부터 공공기관 직원 채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기시험을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눠 도에서 일원화해 실시하고 있다. 2019년 상반기 19명, 2018년 상하반기 60명, 2017년 상하반기 25명을 채용했다.

김정환 기자

아쉬운 석별의 정

광주시는 29일 오전 수영대회 선수촌에서 시민서포터즈와 광주국제우호친선협회, 광주기독교교단협회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미국, 타이완 등 36개국 190여명의 선수단을 대상으로 환송식을 개최했다.

광주시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LTE 무선통신망' 업그레이드

광주시 교통신호 제어시스템이 엘티이(LTE·Long Term Evolution) 무선 통신망으로 업그레이드 된다.

광주시는 2021년까지 교통신호 제어시스템을 기존 저속 유선망에서 초고속 무선망으로 전환하기 위해 통신 사업자 모집공고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무선망 전환으로 교통정보센터 내 노후 시스템을 개선하고, 기존에 지불하던 통신요금의 20% 이상이 절감(연간 6000만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교통신호등의 연동체계 구축을 위한 전용회선 설치공사시 통신관로 매설에 따른 도로굴착으로 야기됐던 보도손상 문제와 보행불편 해소는 물론 가공선도 없어져 환경 개선에도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

광주시 교통정보센터는 1995년부터 교통신호 제어기 온라인 연결을 위한 유선통신을 KT 단일망으로 구축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서은홍 기자

동구 "구정소식 앱, 두드림이 달라졌어요"

광주 동구가 구정소식 어플리케이션 '두드림'을 새롭게 단장해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구정 홍보앱 '두드림'은 2017년 처음 선보여 현재 2만여 명의 주민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주민들에게 각종 구정소식·정책을 전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민원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동구는 출시 2년이 된 두드림의 사용편의성을 높이고자 두드림 메뉴를 새롭게 단장했다. 사용자를 배려한 화면디자인 변경을 비롯해 오늘 개최되는 행사만 한눈에 볼 수 있고, 동별 행사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인문대학 등 구에서 수강생을 모집하는 강좌도 앱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서구,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협력의료기관 협약

광주 서구가 지난 24일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의료기관으로 서광병원과 선한병원을 선정하고 협약식을 가졌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할 경우 재가에서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협력의료기관으로 선정된 병원에서는 의료급여 퇴원자의 요구도를 평가해 각자의 건강 상황에 맞게 케어플랜을 작성한다.

또, 필요시 외래진료와 입원진료를 통해 상태 변화, 식사 여부, 투약 여부 등 상담 및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필요한 입원 없이 재가에서 의료적 욕구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협력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남구, '도움 콜' 하면 7979봉사단 현장 출동

광주 남구 관내 취약계층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결사인 '찾아가는 7979 봉사단'이 29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9일 남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찾아가는 7979 봉사단 발대식'이 열렸다.

발대식에는 김병내 구청장을 비롯해 16개동에서 7979 봉사단으로 활동하는 공무원과 주민 등 100여명 가량이 참석했다.

각 동별 봉사단원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주민들이 '행복한 복지 7979센터'에 접수한 각종 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북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광주 북구가 취약계층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9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25일 관내 (예비)사회적기업 10곳과 '2019년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체결은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북구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선정된 10개 기업(신규 2개, 재심사 8개)에 8월부터 1년 동안 사업비 최대 6억여 원을 투입, 근로자 78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기업운영 연차 비율에 따라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취약계층 50%이상 의무고용, 표준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복무관리 및 목표매출액 달성 등의 의무사항을 수행하게 되고 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참해야 한다.

광산구, 프랜 대디 요리스쿨 참가 가족 모집

광주 광산구가 다음달 17·18·25일 월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에서 개최하는 '프랜대디 요리스쿨' 참가 가족을 모집한다.

'프랜대디'는 아빠와 자녀가 목공·요리 등을 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프로그램으로 2016년부터 광산구가 시작했다.

이번 요리스쿨은 음식을 만들어 먹는 프로그램으로 오전·후로 나눠 총 6회 진행된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요리스쿨 참가대상은, 광산구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어린이와 아빠 12쌍이고,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광산마을학당'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모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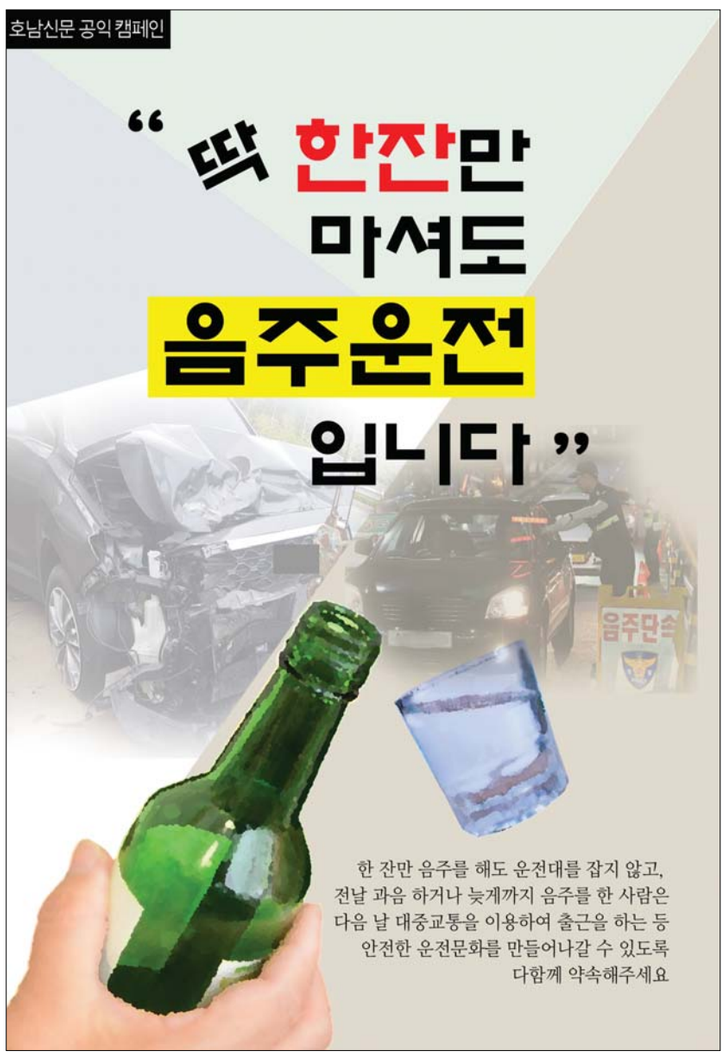
이번 프랜대디 요리스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교육지원과(062-960-8283)에서 한다.

임형택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 우 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